

연중 제 11 주일 화답송 [나해]

시편 92(91), 2- 3. 13- 14. 15- 16

(후렴) 주 님, 당 신 을 찬 미 하 오 니 종 기 도 하 읍 니 다.

1. 주님을 찬미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
종기도 하읍 니 - 다. 당신 이름 찬송하 나 이 다.

2. 의인은 야자나무처럼 우거 지 - 고 레바논의 향백나무처럼
자라 나 리 라.

3. 의인은 늙어서도 열매 맺 - 고 물이 올라 싱싱 하 리 라.

아침에는 당신 자 애 - 를, 밤에는 당신 진실을 알리 나 이 다.

주님의 집에 심 - 겨 우리 하느님의
앞뜰에서 우거 지 리 라.

불의가 없는 나의 반 - 석 주님이 올곧으심을
널리 알리 리 - 라.